제 11호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 조

발행일/2003년 9월 7일 (일)
발행인/이종헌 편집/서종학
주 소/(701-825)대구시 동구 신천3동 147-1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creation21.org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아티클

1. 노아 (10) 노아의 변화 - 이종헌 2쪽
2.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11) 본론 - 옥봉흠 3쪽
3. The BIBLE Comes Alive(8) by Clifford Wilson - 이종헌 역 6쪽
4. 창조단상 (11) 압력밥솥의 원조는? - 박종환 11쪽

인 사 말

요즘은 비가 너무 자주 옵니다. 이런 날씨에는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의 워싱톤주에 있는 시애틀이 그렇습니다. 그 도시의 자살율이 높다고 합니다. 또 비가 자주 오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센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다면... 이제는 비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차라리 비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올림

1. 9월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월(9월)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일시: 2003년 9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Bible Comes Alive(성경고고학 연구)"
발표: 이종헌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노아 (10) 노아의 변화

이종헌 (경일대 교수, 토목공학)

노아의 변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과, 지명, 숫자와, 처음 등장하는 단어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른 것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후입니다. 『모든 산 자의 어미』라는 뜻으로 하와라 이름지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그를 부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실감합니다. 『*나는 티끌이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내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야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을 때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지명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숫자 3은 하나님의 완전수, 4는 세상의 수 등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노아와 관련하여 처음 등장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관영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다음에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13』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해있던 다섯왕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네 왕에게 『**제 십삼년에 배반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날』(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하루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과, 하루만에 생물들을 만드신 것 등을 믿지 못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하루는 1,000년 또는 매우 긴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의 창세기를 들을 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 하루가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이 말하듯이, 『*모세가 지금 말하는 하루는 지질학적으로 한 시대에 속하는 매우 긴 시간일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그것은 하루 24시간을 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 기록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기록된 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노아에 대한 표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창세기에 33개 절에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족보와 관련하여 기록된 부분을 빼고, 주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수 이전의 노아의 믿음과 행적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홍수 직후에 노아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성경에서 제단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이곳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 세우리니 …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제발 믿어달라고 사정하듯이 그렇게 언약을 강조하셨는데, 불과 몇 절이 지나지 않아 노아의 눈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아마도 포도나무의 씨를 방주에 가지고 탔을 것입니다. 장차 거기서 난 열매로 빚어 만들 포도주의 달콤함을 상상하면서... 이제는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난 열매로 술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자 가나안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던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관심이 옮겨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지속적으로 단을 쌓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조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11) 본론 10. 성경에 나타난 수의 상징
옥봉흠 (산업정보대 교수, 성동교회 장로)

◎ 기타 수론(數論)

<11> 혹은 <열 하나>라는 수가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야곱이 밤에 일어나서 <열 한> 아들을 데리고 얍복 나루터를 건넜다"(창 32 : 22)
"호렙산에서 가렙산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다" (신 1 : 2)
"성막을 덮은 둘째 휘장은 <열 한>폭이었다" (출 26 : 7)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하며 악을 행하였다" (대하 36 : 5)

<10> 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상징하는데 <11>은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니 결국 그 질서의 파괴 훼손을 의미한다.

또한 <11>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12>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이다. 그래서 결국 <11>은 10 + 1이거나 혹은 12 - 1로서 **'무질서(無秩序:disorder)'와 '불완전(不完全:imperfection)' '부족(不足:insufficiency)' 미완성(未完成:in completion)'을 뜻한다.**

<12> 혹은 <열 둘>이란 숫자가 구약성경에 나타난 것은 아래와 같다.

"이스라엘은 열 둘 지파이다." (창 49 : 28)
"엘림에는 샘물이 <열 두>개가 있었다" (출 15 : 27)
"모세가 시내산 아래 쌓은 제단의 기둥은 <열 둘>이다" (출 24 : 4)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운 관장(官長)이 <열 둘>이다"(왕상4:7)
"엘리야가 여호와의 단을 쌓은 돌은 <열 둘>이다" (왕상 18 : 31)
"엘리사가 밭을 가는 소는 <열 두>겨리였다" (왕상 19 : 19)

"대제사장의 흉패(胸牌)에 붙인 보석은 <열 둘>이다" (출 28 : 21)

이 외에는 "<열 두>개의 떡덩이" (레 24 : 5)

"<열 두> 지팡이 (민 17 : 2,6),

"<열 두> 정탐꾼" (수 3 : 12, 4 : 2)

"요단강 가운데 세운 <열 두>돌" (수 4 : 9) 등 허다하다.

그리고 **12수는 신성하고 완전한 하늘의 수 3과 물질적이고 유기체적인 것을 상징하는 4의 곱(3×4)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혜의 수 5와 영적 완전 수인 7의 합으로 통치적 완전을 의미**한다.

해와 달은 낮과 밤을 다스리고 지배(支配)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들은 황도대(黃道帶 : zodiac)의 12 표시를 따라 통과하여 12개월 동안 다스려 1년을 완성한다. 따라서 **<12>의 공통 뜻은 "완전한 통치(統治:perfection of government or governmental perfection)" 혹은 "지배(支配:rule)"를 상징한다.** 더불어 12지파, 12명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12라는 수가 종족이라는 낱말과 함께 나타날 때는 '굳게 결속된' 이란 뜻**을 상징한다.

<13> 곧 <열 셋>이란 수사가 나타나는 곳은 아래와 같다.

"7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chedorlaomer)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 (창 14 : 4)

"이스마엘이 <13>세에 할례를 받았다." (창 17 : 25)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왕상 7 : 1)

이상과 같이 **<13> 혹은 <13>의 배수는 배반(背反), 반란(反亂), 모반(謀反), '반역(反逆:rebellion), 배교(背敎:apostasy), 분열(分裂), '나쁜 전조(前兆:ill omen)'**등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

<14> 수는 7의 2배수(7×2=14)이다

"거룩한 완전(完全) 양적(量的)인 것"이 강조된다. (창 31 : 41, 46 : 22 ; 민 29 : 13, 왕상 8 : 65, 마 1 : 17)

<15>수는 3의 5배수 (3×5=15)이다.

"거룩한 완전(完全) 질적(質的)인 것"이 강조되어 있다. 즉 질적인 완성에 은총을 곱한 것으로 3의 5배이다. (레 23 : 34, 왕하 20 : 6. 사 38 : 5)

<17>수는 두 완전 수(7+10=17)의 합이다. 이 숫자는 "영적인 완전(spiritual perfection)" 혹은 "영적 질서의 완전(perfection of spiritual order)을 뜻한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의 솟수(素數)와 같이 성경의 숫자<17>은 어떤 수의 합이 아니고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수(數) 즉 기본 솟수(素數)이다. 7개의 기본수는 1, 3, 5, 7. 11. 13, 17이다.

<40>수는 4의 10배수(4×10=40)이다.

"홍수 때 비가 <40>일 내렸다" (창 7 : 4)

"이스라엘이 <40>일간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출 16 : 35, 민 14 : 33, 신 29 : 15, 수 5 : 4)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40>일간 여행했다" (왕상 19 : 8)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 (민 13 :)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간 광야 시련" (민 14 : 34-35)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다." (욘 3 : 4)
"에스겔이 우편으로 <40>일간 누워서 유다 족속들의 죄를 담당했다" (겔 4 : 4-6)
"예수님의 <40>간 금식" (마 4 : 2)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행 1 : 3)

이상과 같이 **<40> 수는 '시련(試鍊 : trial and testing)' '견습(見習 : apprenticeship)' 준비(準備 : preparation)**의 뜻이 있다.

그리고 <40>의 배수(倍數)로는

<400>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창 15:13)

<4,000>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라" (삼상 4:2)

<40,000> "(수4:13, 삿5:8, 삼하 10:18, 왕상4:26, 대상12:26)등이 있다.)"

<42>는 영원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암시라고 본다. 중세의 성경 주석 학자들은 42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시나이로 가면서 머물렀던 마흔 두 처소를 연결시킨다.

또한 **42는 부정적으로 심판의 수**라고도 본다. 이 세상의 심판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째 태어났고,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을 놀리던 아이들 중 42명을 암곰에 의해 죽게 만들었다(왕하 2 : 24). 고대 이집트의 '사자(死者)의 서'에는 망자들을 처리하는 심판관 42명이 나온다.

<49>는 성스러운 수 7의 제곱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기까지의 기간과 관련이 있다.

<50>수는 5의 10 배수(5×10)이다.

50은 구원 수이며 성경에는 거의 300회가 나온다.

<70>수는 7의 10 배수(7×10=70)이다

70의 공통 뜻은 보편성을 상징한다.

"대홍수 후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70>인이었다." (창 10:)
"야곱이 그 후손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창46:27, 출 15:)
"유대인이 <70>년 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다." (렘25:11, 29:10)
"모세는 무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들을 택하였다."(민11:16)

따라서 <70>수는 '보편(普遍)' 수이며 '구원(救援)'의 수이다. 창조

제2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가리키는 것들

성경의 첫 번째 절은 이렇게 말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가 언제일까? 진화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엔트로피*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복잡한 설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우연에 의한 의미 있는 설계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줄어든다. 어떤 경우이든, 심지어 임의적이고 우연에 의한 진화를 위해 진화론자들이 요구하는 표준에 의하더라도, 의미 있는 설계가 되려면 정말로 많은 시간은 아니다.

홍수 이전의 대기

어떤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소박하게!) 창조를 위해서는 수백만년 혹은 수십억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는 생각에. 그러한 추리는 그릇된 것이다. 우리가 6천년을 생각하든 혹은 60억년을 생각하든, 그런 숫자들은 영원이라는 대양에 있어서는 한방울의 물보다도 작은 것이다. 우리 3차원의 지구인은 시간의 범위를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시간의 사고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된다. 영원하다는 개념은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오늘날 우리는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에 대해 많이 듣고 있지만, 수백만년은 잘못된 것이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은 수천년 정도에 적용하는 것이지 수백만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최근 창조, 즉, 수백만년이 아니라 수천년을 지적하는 기타 주장들이 많이 있다.

기타 몇 개의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이 수백만년을 나타내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러한 연대는 믿지 못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홍수 이후와 이전의 대기 조건이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홍수 이전에는 산소의 부분압이 홍수 이후보다 분명히 두배이므로 그 방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이것은 Ed Blick 교수가 다음의 인용에서 우리에게 환기시키듯이, 홍수 이전에는 사람과 동물이 훨씬 컸고 훨씬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수 이전의 대기는 배경의 방사능을 현재보다 훨씬 적게 가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성의 신체 돌연변이가 적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모든 종류의 생물체를 크고 강하고 오래 살도록 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수 이전에 지구는 한 개의 고체 덩어리로서 단 하나의 구조상 판/tectonic plate 위에 놓여있었고, 바다가 땅의 많은 부분을 덮었었다고 믿을만한 아주 훌륭한 이유가 있다. 그러다가, 지표면으로 덮인 면적이 상당히 증가하여져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든 생물에 작용하는 산소의 부분압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즉, 보다 더 확산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속된 말로, 산소압은 일정한 양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훨씬 더 넓은 면적으로 퍼졌다.

태양의 나이

콜로라도 Boulder에 있는 높은 고도 천문대/High Altitude Observatory의 태양에 관한 물리학자 John Eddy의 설명에 의하면,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성경의 진술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태양의 나이가 45억년이라고 짐작을 해본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새롭고 예측하지 못했던 몇가지 결과를 도입하고, 시간을 재계산하여 이론적인 재조정을 하면, 어셔/Ussher 주교가 계산한 지구와 태양의 나이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문학에서 관측되는 증거가 그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한 숫자가 논쟁거리이기는 하지만, 태양이 계속해서 거대한 양의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은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년 혹은 심지어 수백만년이 될 수 없으며, 100,0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지구와 태양이 한 덩어리였다는 사실에 이른다. 태양과 지구는 둘 다 비교적 젊다.

또 하나 흥미 있는 사실은 태양과의 관계에서 지구의 위치가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지금보다 태양에 훨씬 더 근접한다면 우리는 격렬한 열로 인해 오그라들었을 것이며, 훨씬 더 떨어져 있었다면 극심한 추위로 인해 얼어버렸을 것이다.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는 그것이 설계되었다는 것과, 또한 친히 태양을 설계하여 하늘 가운데 지정한 위치에 그것이 놓이도록 지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설명과 동반한 인용(위쪽)은,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성경의 진술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단(星團)의 붕괴

우주에 대해 "늙은 나이"를 지지하기 위해 제시되는 또 다른 주장은 하늘에 있는 은하계들의 나이와 관련있는 것이다. 텍사스 대학의 물리학 및 천문학 교수인 Harold S. Slusher 박사가 쓴 아래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에는 측정 기술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별의 붕괴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기성의" 천문학자들에게는 그 결과가 놀랄만한 것이다.

> **이들 성단이 붕괴하는 것은 성단을 이루는 별들의 속도가 빨라서 성단 자체의 중력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 **별들은 공통의 점으로부터 매우 빠르게 분기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이동을 이 공통의 점으로 거꾸로 투영하면 성단이 불과 수천년 전에 생긴 것으로 나온다.**

그런 깜짝 놀랄만한 증거는 "기성의" 입장에 반대되기 때문에 뉴스의 표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때때로,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암시가 언론으로 슬며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호주 멜버른/Melbourne의 *Herald-Sun*지 1996년 12월 9일자에, "**인용할 가치가 있는**/QUOTABLE"이라는 제목 하에 한 문단이 실렸다. 그것은 간단한 문장이었다:

> 『"**이것이 구상성단(球狀星團)의 나이에 관한 논의를 해야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 미국의 천문학자 Robert Kraft가, **구상성단, 즉, 밀집한 천체는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30억년은 더 젊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며.**』

구상성단의 나이를 30억년이나 줄인다는 것은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다. 우리는 또 다시 창세기 기록에서 암시하는 젊은 나이에 접근하기 시작한다!

별들은 언제부터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을까?

>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 그 과정을 거꾸로 하면, 별들이 서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수백만년 혹은 수십억년 전이 아니라 수천년 전임을 알 수 있다.**

별들이 서로 멀어지기 시작한 것에 대한 Slusher 교수의 진술은 바로 그 별들의 기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별들의 기원이 단지 수천년전 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단호히 말한다.

분명히 이것은 그들의 기원에 대해 수백만년 혹은 심지어 수십억년이라고 하는 계산과 상당히 다르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다. "컴퓨터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기성의 관점들이 점점 더 도전을 받는 것 같다.

이처럼, 성단들이 서로 멀어지는 속도를 알 수 있다. 많은 천문학자들이 놀랍게도, 그 과정을 거꾸로 해 보면 이동이 불과 수천년 전에 시작되었음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성경 기록과 일치한다!

원자에너지 과학자의 설명

>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가르치려는 과학자는 위대한 사기꾼이며,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속임수일 것이다. 진화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

위의 인용은 미국 원자에너지 위원회의 공인된 권위자인 생리학자 T. N. Tahmisian 박사에게서 나온 강력한 표현이다.

누가 "사기꾼"인가?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창조과학자들이 아니다 … 문자 그대로의 사람 "아담"의 실제성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추종자들이 아니다. 그 **사기꾼**은 진화가 사실이라고 가르치려는 과학자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속임수일 것이다**. "진화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말 강력한 말이다!

신화는 관통했다…

> **"신화가 분자의 수준까지 관통한 것은 아마 우리 시대가 처음일 것이다!" 콜럼비아 대학의 Erwin Chartaff 박사(진화에 관하여)**

진화가 "분자의 수준까지 관통한 신화"의 형태라면, 앞서가는 진화론자들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준비가 된 것을 발견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H. J. Lipton 교수는 이렇게 썼다:

『"… **수용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설명은 창조이다** …"』

이 저명한 과학자는 분명히 창조론자로서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현대의 책 속에 과다하게 들어있다는 점에서 분명하듯이 과학의 다른 많은 영역에 뻗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물리학자들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질학자와 생물학자들도, 화석의 나이는 암석을 가지고 측정하고, 암석의 나이는 화석을 가지고 측정하는 순환논리/circular reasoning의 문제를 직시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생물과 사람이 공존했다는 증거가 늘어나자, 멸종된 것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알려진 생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지질 주상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에 커다란 의심을 갖게 되었다.

곤충과 식물의 공생관계, 심지어 우리의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어머니 앞에 딸이 있고 남자 혹은 여자 조상 앞에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존재하는 느린 진화의 형태가 아니라, 동시적인 (성년) 창조를 가리킨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준비가 되어있는 지식 있는 진화론자 진영에서 혼란이 증가하고 있다.

진화의 옛날 이야기

진화의 옛날 이야기들
- **바빌론의** *Enuma Elish*
- **이집트의** ***사자의서/Book of the Dead***
- **기타 창조 신화들**
- **그리스와 로마의 신격화된 인간**
- **다윈과 그의 추종자들**
- **von Daniken과 "박테리아"**
- **Stephen Gould와 "중단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다윈의 "진화론"은 그러한 "옛날 이야기" 중의 첫 번째 것이 아니다. 초기의 바빌론 사람들은 그들의 서사시 *Enuma Elish*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신 마르둑이 악어 여신 티아맛을 둘로 갈라서 한쪽 반으로는 하늘을 만들었고, 다른쪽 반으로는 땅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집트의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는 유일신(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금방 조잡한 다신교(하나 이상의 신을 믿음)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리스와 로마는 사람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괴상한 신적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개념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신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독특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창세기 1장과 반대된다.

진화는 옛날 이야기이다!

인류학과 고생물학 영역의 지도자들은 다윈의 이론에 근거한 그들의 개념이 자기들 스스로의 경험적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증거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바꿔왔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Lyall의 진술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 **『동아프리카에서 고생물학자인 Richard Leakey와 Donald Johanson이 열심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기록에는 갈라진 구멍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4백만년에서 6백만년까지 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원숭이는 난데없이 솟아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과거도 없으며 화석기록도 없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하다면, 직립하며, 벌거벗었고, 연장을 만들며, 두뇌가 큰 존재인 인간의 진정한 기원도 역시 알쏭달쏭한 문제이다.』**

Eric von Daniken(***신들의 전차/Chariots of the Gods***의 저자)에게는 "우주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구로 접근할 때 행성에서 원숭이를 닮은 생물을 찾았으며,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그들을 "호모 싸피엔스"로 변환했다! 그것은 아직도 또 하나의 "어른들을 위한 옛날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von Daniken의 책은 (북 다코다주의 Fargo에 있는 대학에서 네시간에 걸쳐 논쟁할 때 von Daniken이 내게 개인적으로 한 말에 의하면) 수천만명에게 팔렸다.

창조단상 (11) 압력밭솥의 원조는?
박종환 (경북대 교수, 화학)

압력밭솥의 원조는?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멍청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사실 창조론적 사고를 해 보면 최초의 사람들이 현재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똑똑했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실험을 해 보라. 내가 아담이 되었다고 치고 세상에 보이는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 아무 편견 없이. 아담만큼 이름을 지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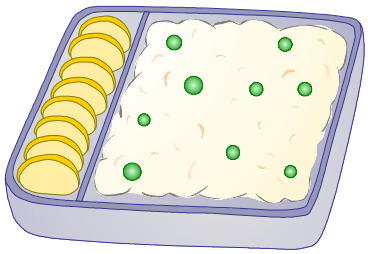
각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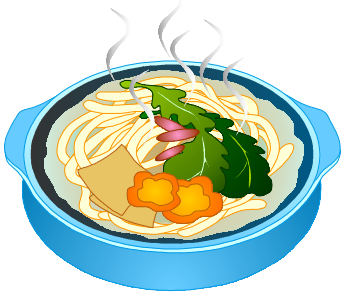
압력밥솥의 원조는 어딜까? 프랑스일까? 아니다.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가마솥이 바로 압력밥솥의 원조이다. 압력밥솥의 원리는 이렇다. 밥솥 속의 압력을 높여서 물의 끓는 온도가 보통 끓는 점(100℃)보다 높아지고, 높은 온도에서 쌀이 훨씬 잘 익게 되어 밥맛이 좋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마솥의 뚜껑이 무겁고 크다. 그래야 밥솥 속의 물이 끓을 때 압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인들이 최근에야 겨우 그 원리를 알아내어 써 먹게 된 것이다. (신부 수업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집 온 신부가 밥이 끓을 때 다 익었는가 하고 솥뚜껑을 뒤로 열어젖히다가는 팔뚝을 데기 십상이다. 높은 압력의 증기는 화상을 더 깊게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열면 밥솥 속을 들여다보기는 불편하지만 팔뚝 데일 일은 없다.)

전통적인 시골의 부엌에서 아침밥을 지으려면 주부가 걷는 거리가 자그마치 10리(4Km)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릇이나 살림 도구를 들었다 놨다 하다보니 충분한 운동이 된다. 현대식 가정과 운동량을 비교해 보라.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것도 역시 너무 힘들고 불편한 일이다. 그것도 하루에 세 번 꼬박 밥을 해댄다고 생각해 보라. 여자들은 특히 몸이 따뜻해야 특히 부인병 같은 잔병에 걸리지 않는데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하던 사람들은 여자들의 몸을 하루에 세 번 거의 몸을 굽다시피 하기 때문에 부인병이 잘 걸리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농사일을 감당해 낼 수 있었다. (아기를 낳은 산모는 몸을 뜨겁게 하여 몸조리를 하는데 요즈음의 아파트라는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전통적으로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과학은 단지 수치화되지 않았을 따름이지 현대의 어떤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다.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